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참된 지혜와 지식의 유일한 근원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설교자: 마티아스 샷트 (Matthias Schat) [골로새서 2:1-5]

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 4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하나님은 존재할까?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사후세계는 존재할까? 이것은 대단히 실존적 질문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답해야만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본문 구절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 근원, 인격인 그리스도 한 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별로서 그 분께 끊임없이 매달려야 합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의 유일한 근원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1, 바울의 권면: 바울은 골로새인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즉, 하나님의 신비가 계시된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격려이자 위로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기 원했습니다(2절). 이것이 바울이 우리를 위해 애쓰는 목적이었습니다(1절). 바울은 그리스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확신과 이해가 종종 낙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며 격려받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어떻게 인간이 창조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지혜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총명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3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에 대한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놀라운 격려입니다. 그리스도는 심지어 가장 어둡고 힘든 상황과 여정 속에서도 그분의 약속은 변함없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에 목적과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지식을 찾는 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이를 실천합니다. 2, 바울의 경고: 오늘 설교본문 4절에서 초점이 약간 옮겨집니다. 여기서 그는 골로새인들에게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골로새인들은 거짓 가르침에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선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그럴 듯하게 포장된 속임수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가 주는 비슷한 거짓말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성연애도 똑같은 사랑이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모든 종교는 같은 신을 경배한다” 와 같은 거짓된 세계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그럴 듯해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지혜에 이것들을 비춰보며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믿음의 선한 질서와 확고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격려하면서 경고를 마칩니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은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유지하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고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 중 하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참된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삶에 안주하긴 쉽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는 것으로부터 오는 참된 격려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기분 좋게 포장된 거짓말의 함정에 빠지는 대신, 성령님의 지속적인 도움을 바라며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가장 중요한 근원되십니다.